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1년간 미 품목별 가격 변동 달라: 베이킹 용품 ↑... 반대로 평면 TV ↓
- Bloomberg: 미 무역적자 폭, 2년 만에 가장 적어
- CNN Business: 미국인 고물가로 연말 시즌 '미친 듯이' 지출
- CNN Business: 흑한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연초로 지연돼

[미국 금융]

- Bloomberg: 2023년 미 은행의 미래: 침체, 금리 인상 등

[공급망]

- Business Insider: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하는 다섯 군데 지역은?

[중국 경제와 코비드]

- CNN Business: 중국 작년 GDP 8.4%로 상향 조정... 올해는 힘들어
- Bloomberg: 중국, 코비드 제한 조치 완화... 새로운 여권 발급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 우려에도 연말 쇼핑 대목 판매 7.6% 증가 호조"
- 연합뉴스: 중국 입국자 의무격리·PCR 검사 폐지 발표에 국제유가 상승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2023년에도 원격 근무 계속될 듯... 노사 모두에 도움
- CNBC: 빅테크 다 물리친 IBM...투자자들 성장주 기피 탓
- CNBC: 로봇 고용하는 레스토랑 체인들... 노동력 대체 가능할까
- Tech Crunch: 2023년 AI에 기대할 것은?
- WSJ: 반도체 칩 재고 급증... 관련 제품 기기 구매 감소 탓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Baking Supplies Cost a Lot More This Year. So Did Flying. But That Flat-Screen TV Got Cheaper.

1년간 미 품목별 가격 변동 달라: 베이킹 용품 ↑... 반대로 평면 TV ↓

- 지난 12개월 동안 계란, 마가린, 밀가루 가격이 전체 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또한 항공료, 휘발유, 헤어컷 등이 가격 상승 품목에 포함됐다.
- 반면에 텔레비전과 게임 티켓은 2021년 말부터 가격이 낮아진 몇 안 되는 품목 중 하나다.
- 한마디로 물가고 속에서도 품목 물가 상승 폭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한편 올해 6월 연 물가지수는 9.1%로 크게 상승했으나 11월에는 전년 대비

7.1%로 둔화되었다.

WSJ 기사

Bloomberg: US Goods-Trade Deficit Narrows to Smallest in Nearly Two Years

미 무역적자 폭, 2년 만에 가장 적어

- 미국의 수입 급감으로 11월 상품 무역적자가 지난 2020년 12월 이래 가장 작은 폭으로 줄었다.
- 연방 상무부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적자는 15.6% 줄어든 8백 33억불을 기록했다.
- 구체적으로 수입은 7.5% 줄어든 2천5백22억불, 수출 규모는 3.1% 감소한 1천6백89억불을 기록했다.
- 수입이 어떻게 크게 줄었을까? 소비재 13%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자동차, 식품 및 음료, 산업용품의 기타 수입도, 대부분의 수출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줄었다.
- 물론 소비재 상품의 수입은 올해 초 기록적인 수준에서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높다.
- 미국인은 최근 수개월 동안 상품 대신 서비스에 주로 지출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Americans spent like crazy during the holidays because of high inflation

미국인 고물가로 연말 시즌 '미친 듯이' 지출

-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매 지출과 외식 지출 부담이 더 생겨 올해 연말 시즌 그들의 지출을 늘렸다.
- Mastercard Spending Pulse에 따르면 미국인 소매 지출은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작년 동기에 비해 7.6% 늘었다. 이 수치는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소매점과 온라인 소비의 모든 결제 형태를 추적한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는 않았다.
- 이 같은 수치는 소비 지출 위축으로 11월 소매 판매가 감소한 후에 일어난 반가운 소식.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연휴 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Winter weather turns last-minute Christmas gifts into New Year's presents

혹한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연초로 지연돼

- 미국 많은 지역에 대한 큰 겨울 폭풍으로 배달 업체들의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패키지 시설 일시 폐쇄, 도로 차단 현상이 발생했다. 뉴욕 일부 지역에는 43인치의 눈 등으로 최소 전국에서 43명이 사망. 수천 명의 크리스마스 전원이 끊겼다.
- UPS는 어제 월요일 4개 주에 걸쳐 8백98개의 우편번호에서 서비스 중단됐고, FedEx도 하루종일 계속해서 중단되며, UPS는 미시간, 뉴욕과 인디애나, 오하이오의 수백개 우편번호에서 픽업이나 배송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웹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알렸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Recession, Rate Hikes, Diversity: What's Ahead for Banks in 2023

2023년 미 은행의 미래: 침체, 금리 인상 등

- 올해 은행 업계는 어려운 자본시장, 일자리 삭감, 높은 물가, 암호 화폐 붕괴, 상승하는 금리로 격변의 한해였다.
- 내년도 은행의 미래는 상당 부분 연방정부에 달려있다.
- 내년에 여전히 금리인상이 있기에 침체 가능성이 높아 신용 품질이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 은행은 이를 견딜 것으로 보인다. 자본 위치와 유동성 위치가 강하기 때문이다.
- 전통적인 은행도 관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경쟁자들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 시장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폭락했고 신규 모기지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TransUnion은 연간 구매 건수가 400만 건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21년의 절반 정도이다.
- 현 시장에서 핀테크들은 비용을 줄이고 소진율(burn rate)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암호화폐는 규제 대상이 된 영역이다. 증권거래위원회의 Gary Gensler의장은 규제를 회피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움직임을 시사했다.

Bloomberg 기사

[공급망]

Business Insider: China is losing its place as the center of the world's supply chains. Here are 5 places supply chains are going instead.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하는 다섯 군데 지역은?

- 인도는 고급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활한 땅과 젊은 인구에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과 칩 제조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 베트남은 1986년 이후 급속한 경제 개혁을 거쳐 상당한 성과와 수익을 거두었다.
- 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규모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3배 증가했다.
- 방글라데시는 이미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이동의 수혜자다. 이제 파이의 더 큰 부분을 원하고 있다는 것.
- 말레이시아는 수년 동안 중국에서 떠나고 또 떠나려는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오고 있다.

Business Insider 기사

[중국 경제와 코비드]

CNN Business: China adds billions to its 2021 GDP estimate, but its economy is facing a big test this year
중국 작년 GDP 8.4%로 상향 조정... 올해는 힘들어

-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GDP가 당초 추정치 8.1%에서 8.4%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 즉, 8백억불 늘어난 16조5천2백달러로 늘어났다는 것.
- 이 같은 증가분은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5%로 성장했으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2.8%에서 3.2% 사이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전망치는 마오쩌둥 사망으로 10년간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끝난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한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China Removes More Covid Travel Restrictions With New Passports, Permits**중국, 코비드 제한 조치 완화... 새로운 여권 발급**

- 중국은 이제 본토 주민들에게 새로운 여권과 홍콩 여행 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3년간의 엄격한 코비드 제한으로 인한 관광 장벽의 일부를 제거하는 조치 때문이다.
- 중국인민국은 또한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조치 가운데 홍콩과 마카오와의 국경에 '급행 검문소'를 재개할 것이라고 WeChat를 통해 밝혔다.
- 또한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 격리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5일간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하고 3일 동안 자택 격리를 해야 했다. 외국인의 비자 연장·갱신 신청도 재개된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연말 쇼핑대목 판매 7.6% 증가 호조"
- 연합: 중국 입국자 의무격리·PCR 검사 폐지 발표에 국제유가 상승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Bloomberg: Will Remote Work Continue in 2023?****2023년에도 원격 근무 계속될 듯... 노사 모두에 도움**

- 경기 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노동시장이 악화하면서 선택권이 고용주들에게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원격 근무 근로자의 약 75%가 장기적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원격 근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 먼저 Stanford 대학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통해 직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소비가 35%나 줄었다. 직원의 이직은 기업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높은 성과를 내는 인재가 필요하다.
- 또 원격 근무를 통해 기업들은 더 넓은 지리적 영역의 더 큰 인재 풀에서 직원 모집이 가능하다. 적합한 지원자를 찾기 까다로운 전문직의 경우가 특히 유리하다. 또 장애인, 워킹 부모, 유색인종이 원격 근무로 혜택을 볼 수 있어 기업의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도 향상되었다.

- 한편 원격 근무는 사무실 공간의 필요성을 줄여 기업들은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 직원들이 업무 유연성과 출퇴근 비용 절약의 대가로 임금 삭감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건비가 낮은 지역의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었다.

Bloomberg 기사

CNBC: IBM beat all its large-cap tech peers in 2022 as investors shunned growth for safety

빅테크 다 물리친 IBM... 투자자들 성장주 기피 탓

- 투자자들이 성장주를 기피하면서 IBM의 2022년 주가가 6% 올라 전체 기술주 1위를 차지했다. 500억 달러 이상 규모인 미국 기술 기업 중 유일하게 IBM과 VMware 만이 2022년 주가가 올랐다. 메타, 아마존, 테슬라는 주가가 크게 떨어진 반면에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 11년 된 IBM으로 눈길을 돌렸다.
- IBM은 최근 분기 1년 전보다 25% 증가한 7억5천2백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고, 15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3분기 실적과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며 올해 전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 한편 IBM의 주식이 회사 내부의 주요 흐름보다 단순히 경제 상황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CNBC 기사

CNBC: Why restaurant chains are investing in robots and what it means for workers

로봇 고용하는 레스토랑 체인들... 노동력 대체 가능할까

- Chipotle, Sweetgreen, Starbucks 등 외식업 체인들이 앞다퉈 자동화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외식업계가 팬데믹 이후에도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물가 상승에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미외식업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에 따르면 식당 운영자의 4분의 3이 인력 부족으로 식당을 전면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업계의 계속된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시도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이후 식당 자동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은 줄어들었지만, 업계는 노동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게다가 아직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업무 정확도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 한편 지난 3분기 조사에 따르면 500여개 외식 사업자 중 22%가 주방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19%는 기술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자동화의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고 자리를 잡으면 외식업계 인력이 영구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CNBC 기사

Tech Crunch: What to expect from AI in 2023 2023년 AI에 기대할 것은?

인공지능은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2023년의 인공지능은 규제에 의해 억제될 것인가? 혁신적이고 강력한 AI의 등장이 업계를 집어삼킬 것인가?

1. 늘어나는 인공지능 예술 창조와 문제들: 인공지능은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제공받아 '학습'해야만 특정 단어와 개념을 이미지와 연관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관점을 옹호하는 등 유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또 인터넷상의 data sets를 재창조하는 데에 있어 저작권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다.

2. Open source와 탈중앙화(decentralized effort)의 성장: 2022년에는 OpenAI와 Stability AI를 중심으로 소수의 기업들이 무대를 장악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AI 모델과 데이터 개방에 힘입어 다양한 기업들이 분산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결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AI 규제에 맞서기 위한 노력: EU의 AI 법과 같은 규제가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기술적 경함을 내재한 채 시장에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따라서 기업들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더 많은 충돌을 겪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4. 투자 불확실성: AI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과 투자자들이 내년에도 충분한 투자 의향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투자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보다도 고객 불만 분석 자동화, 판매 리드 생성 등에 사용되는 AI에 더 안전한 베팅을 선호할 수도 있다.

Tech Crunch 기사

WSJ: Chip Inventories Swell as Consumers Buy Fewer Gadgets 반도체 칩 재고 급증... 관련 제품 기기 구매 감소 탓

- 2년간의 수요 급증과 세계적 공급 부족 이후, 반도체 시장은 급격한 반전을 맞고 있다. 금리 상승, 증시 하락, 경기 침체 우려로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약화되면서 반도체 칩 재고 수준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PC 출하량은 2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스마트폰 판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에 칩을 공급하는 퀄컴 역시 올해 판매 전망치를 거듭 하향 조정했다.
- 이에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최근 몇 달간 감원과 자본 지출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지금의 재고 과잉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생산 계획을 축소하며 재고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2030년까지 칩 매출이 약 두 배로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내년 침체에 금리 내릴것”... 월가 10대 투자銀 6곳 전망

[美中 경기침체]

現 4.25~4.5% 금리→내년 5~5.5% 예상

英연구소 “침체 얼마나 심각할지가 관심”

연준 부인에도 “금리 내릴 수밖에 없을것”

미국 10대 투자은행(IB) 중 8곳이 새해 미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BER)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내년 침체를 앞두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새해 경제 전망이 어두운 주 원인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꼽힌다. 치솟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꺼내든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주택경기 침체, 주가 하락, 실업 증가, 소비 부진 등으로 이어져 내년 세계 경제를 짓누를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예상했다.

CBER는 26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1980년대 이후 처음 치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대가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라며 “올해 초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가 논쟁의 중심이었다면 새해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할지, 회복이 얼마나 빠를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